



기억



내 이름은 이유미,
단원 중등학교 3학년.
오늘도 학교에 안갈 예정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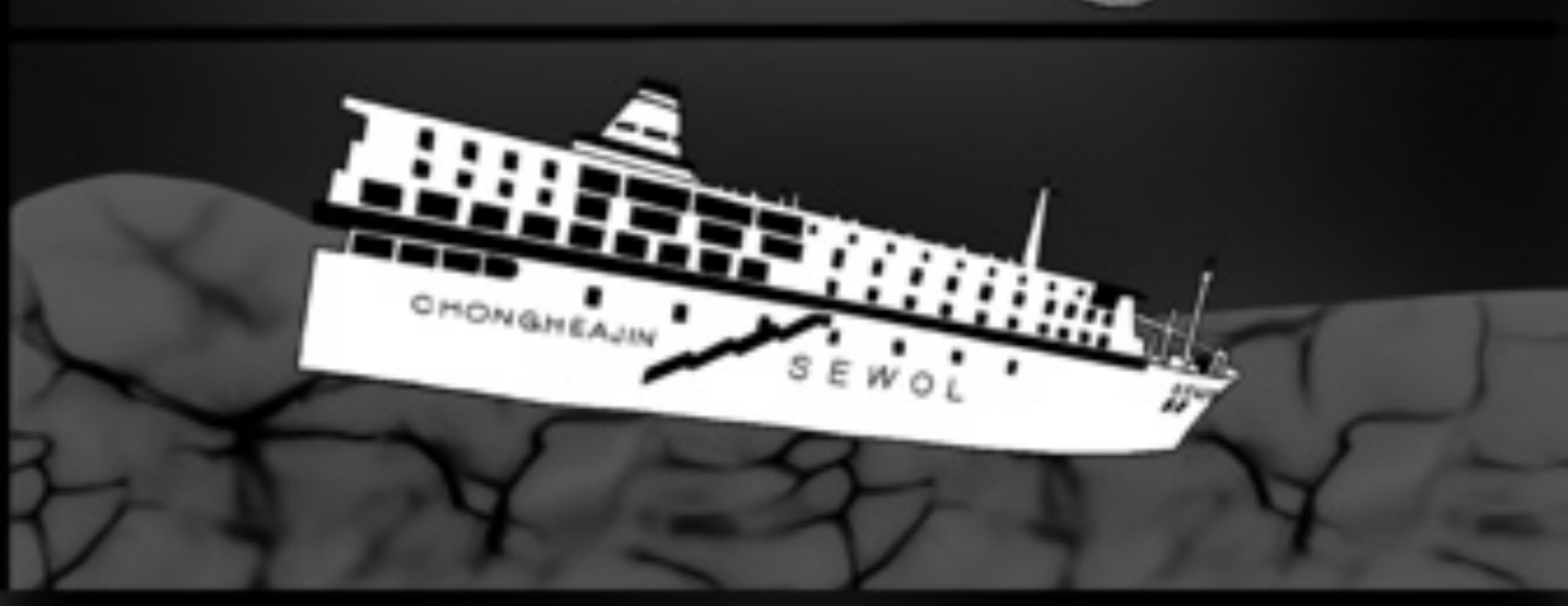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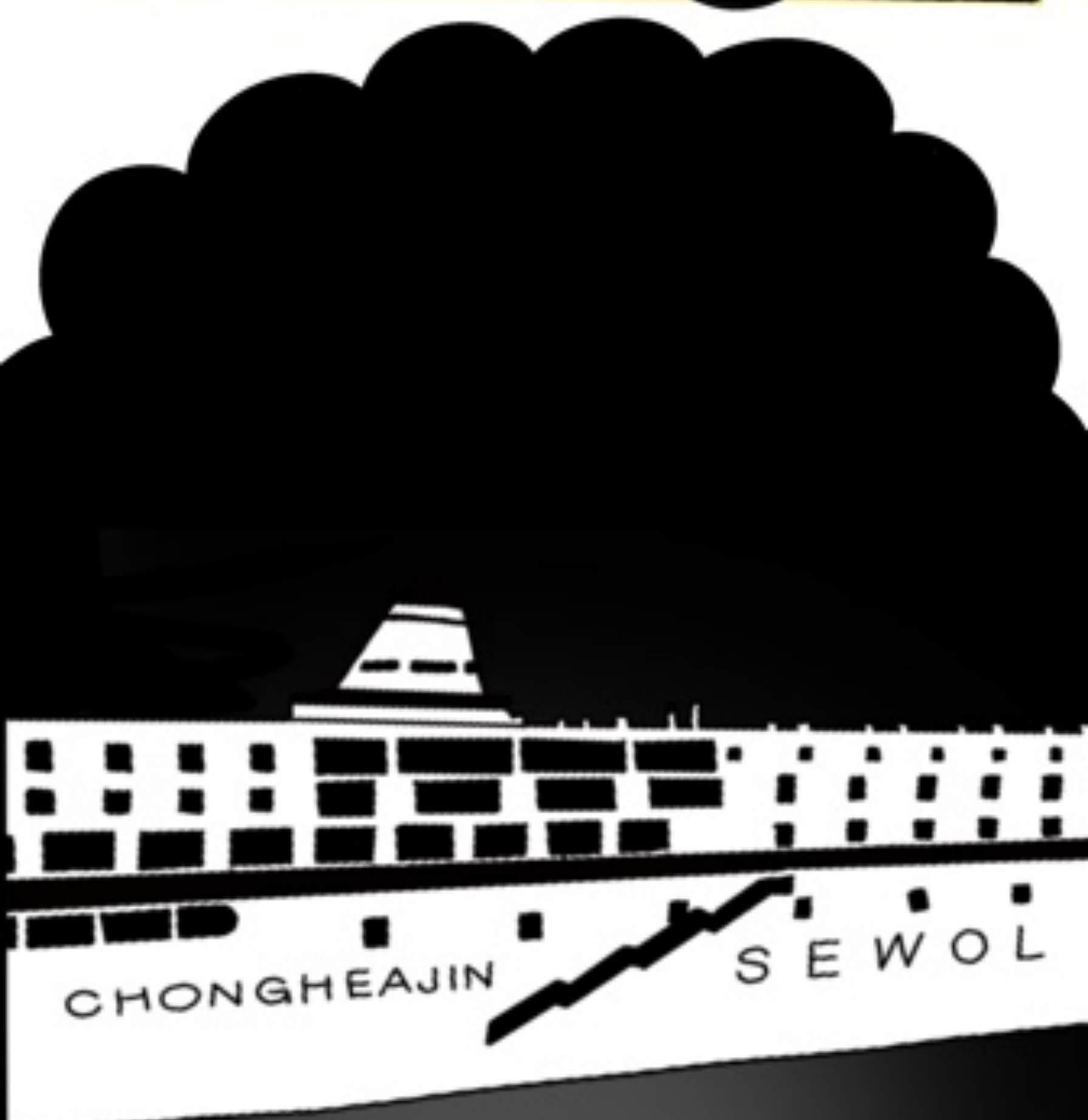
오늘도 머리가 아프다.
머리가 아플 때엔 집중하기 힘들다.



안 피곤했다.
집에 가야지...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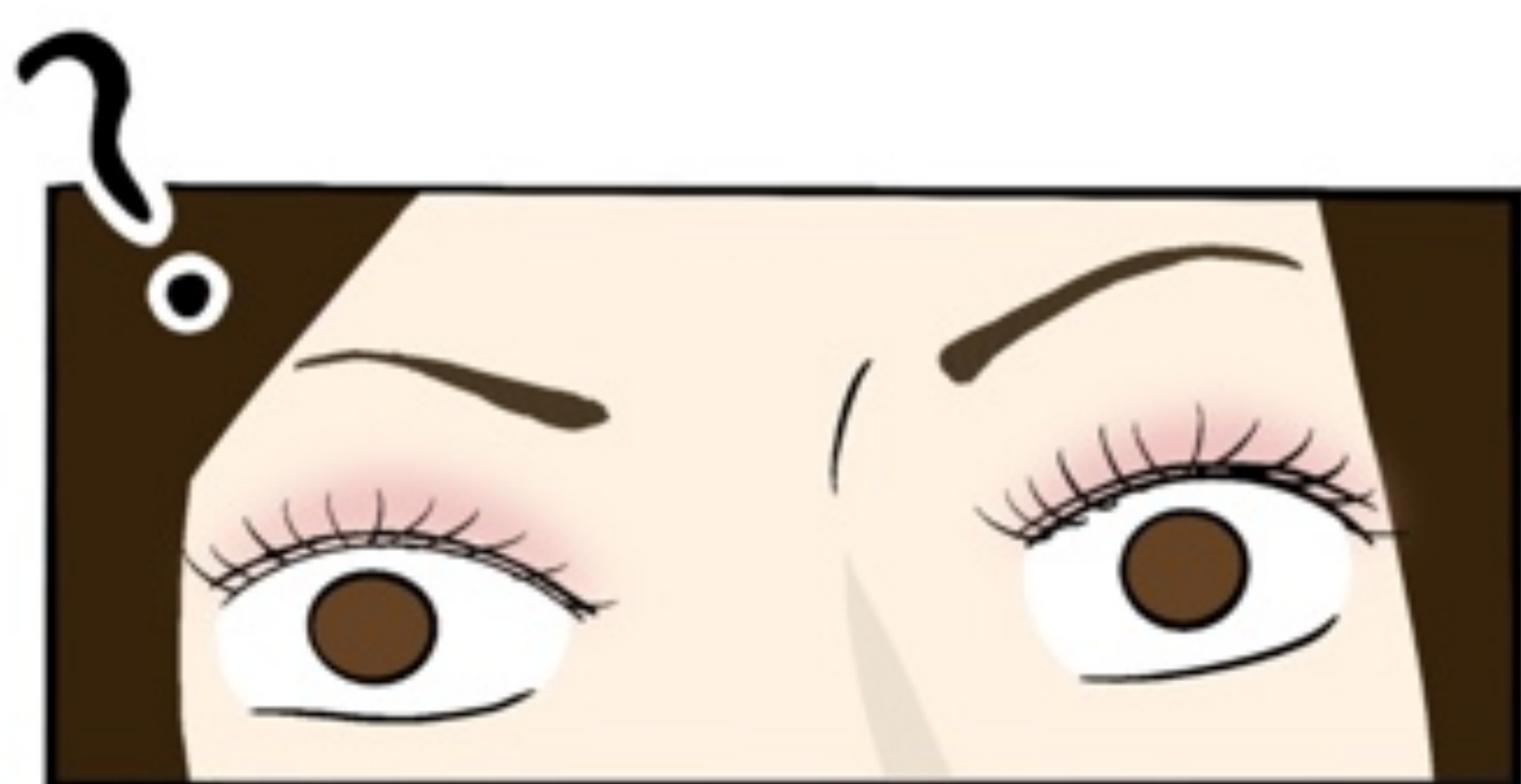
낮잠 중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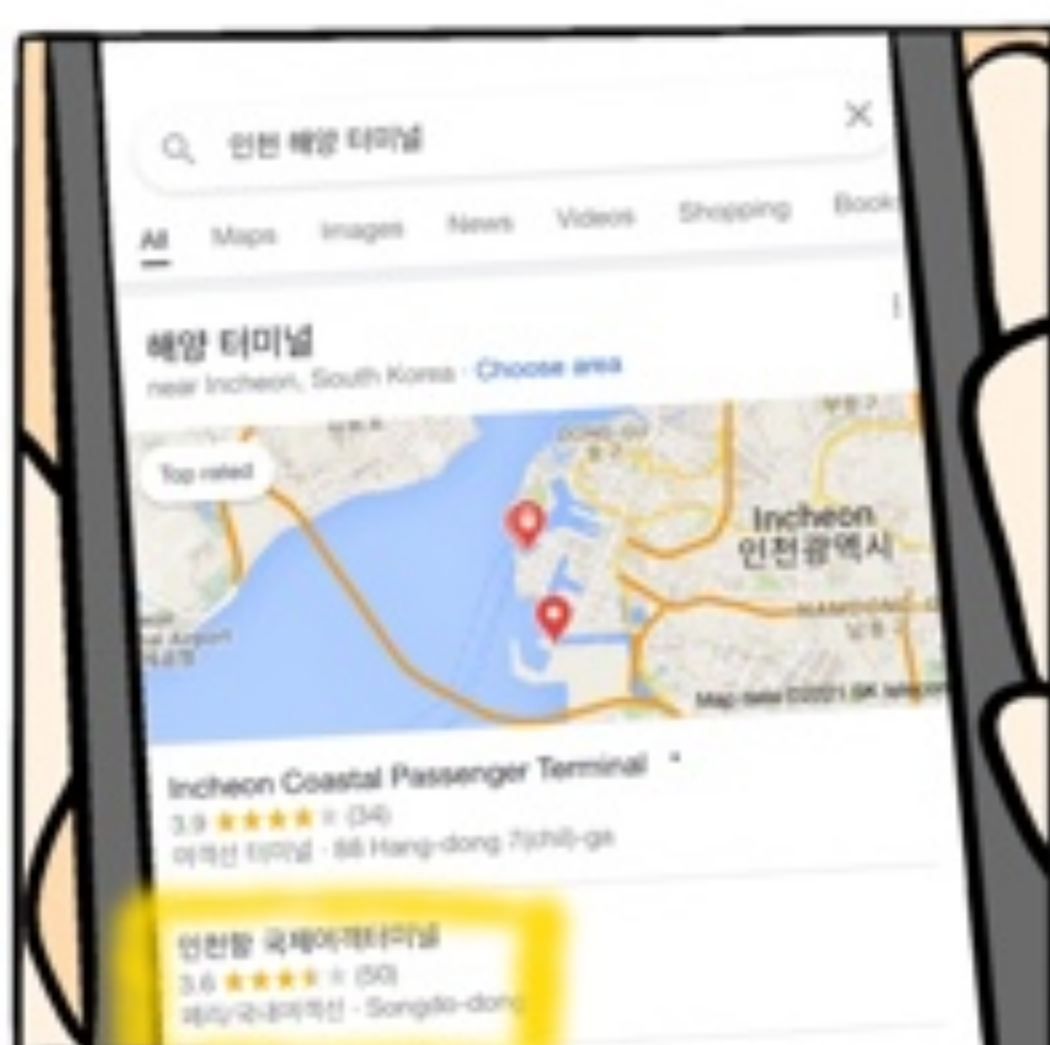


똑같은 꿈을 계속 꾸다.

그런데 이상하게
항상 같은 곳에서 멈추고
잠에서 깨다.



세월호 세월호
들어본거 같은데,
어디서 들었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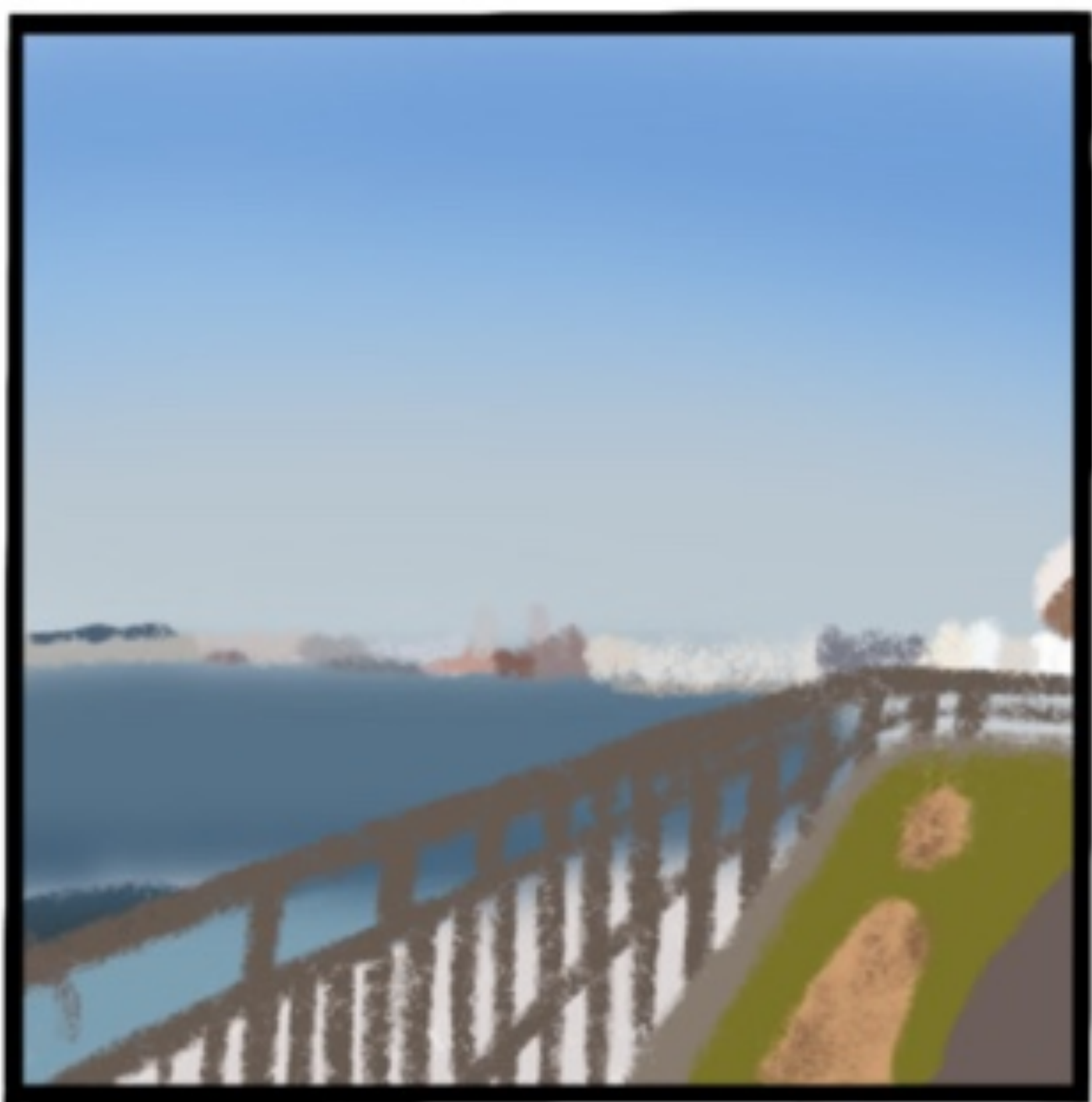
인천 터미널?
가보면 생각나겠지?



꼭-바라보!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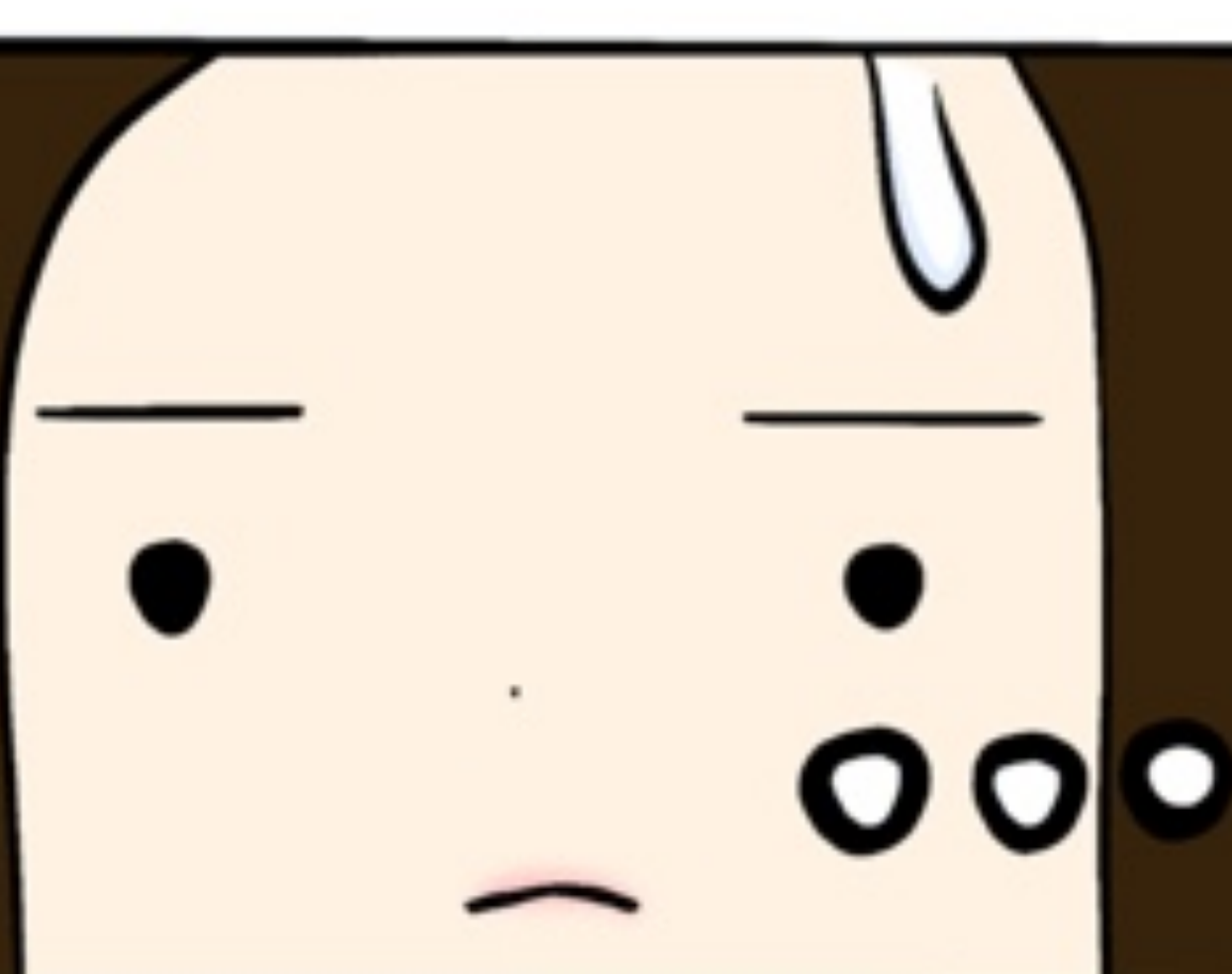


알고 표시다.



아저씨,
세월호 어디에서 타셨어요?

아이고. 학생!
작년에 세월호를 가다 앉았는데.....
세월호 사고 뉴스를 안봤어요?



사고라니요 ? 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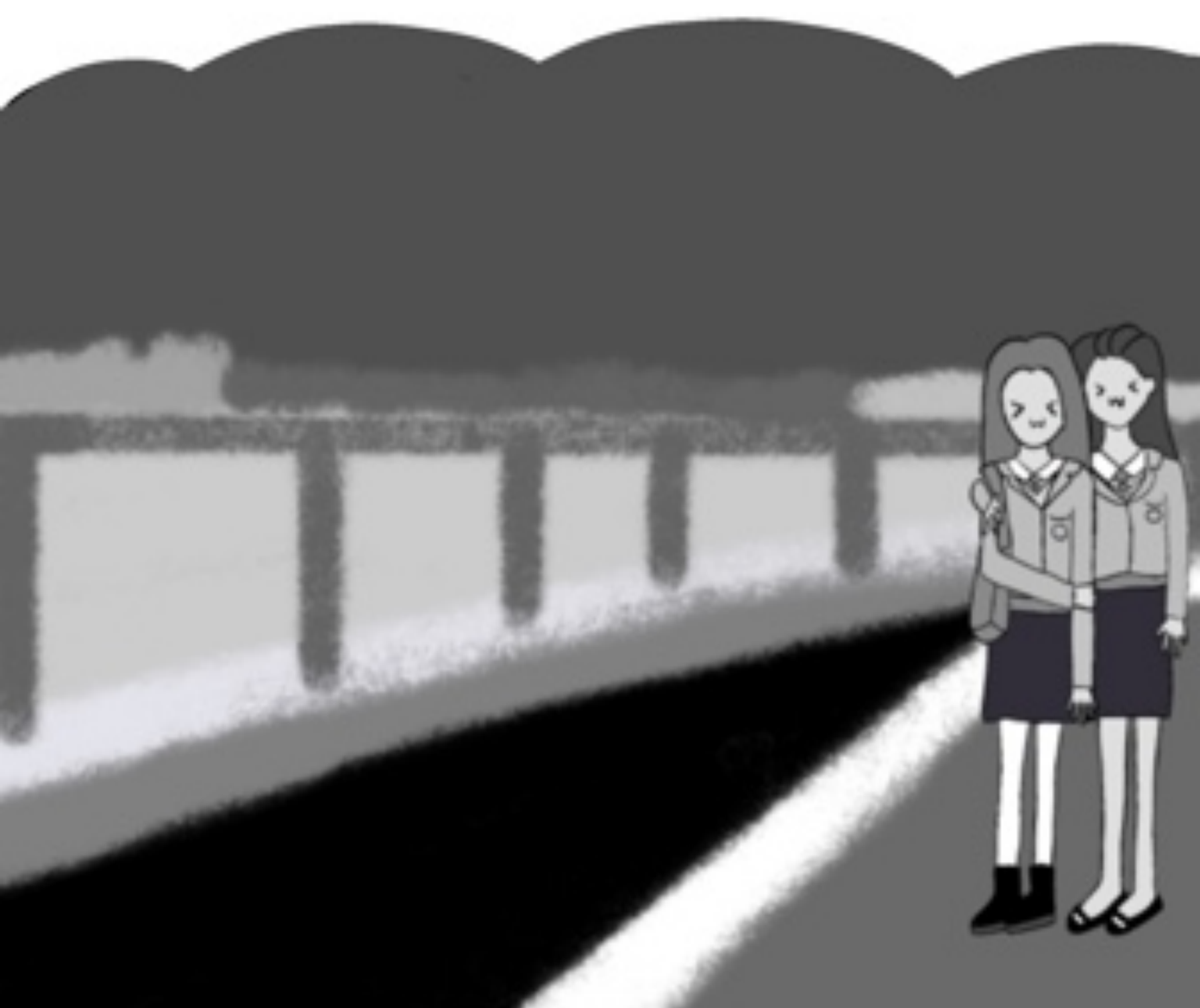
작년에 세월호타고 단원고등학교생들이나 진생생들이
수학여행가다가 배가 가라앉았어. 제대로 차라지
못하는 바람에 476명중에 5명이 실종되고
299명이 사망했어.

배가 왜 침몰했는지도 모르고 사고 당시 진생이나도
사망을 호화 매장가고 차라지 제대로 이죽어지
않아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아랑 진생생들이 희생됐어.
바닷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고통스러웠을까

아..... 네..... 감사합니다.
그럼 안녕히 계세요.

단원고등학교 ? !!

우리학교인데





강미래,
넌 조대혜
누가 ?

아, 못봤다.
배나 타러 가야겠다.



잠시 후...





승객 여러분,
이제 출발합니다!







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네...
네가 먼저 입어라 -.

그럼 너는 ???!!

아 - 기억이 돌아온다.



안그래?
조심해라~!

유미야,
내 자켓까지 찾아올게!
몸따윈 내가 알아서~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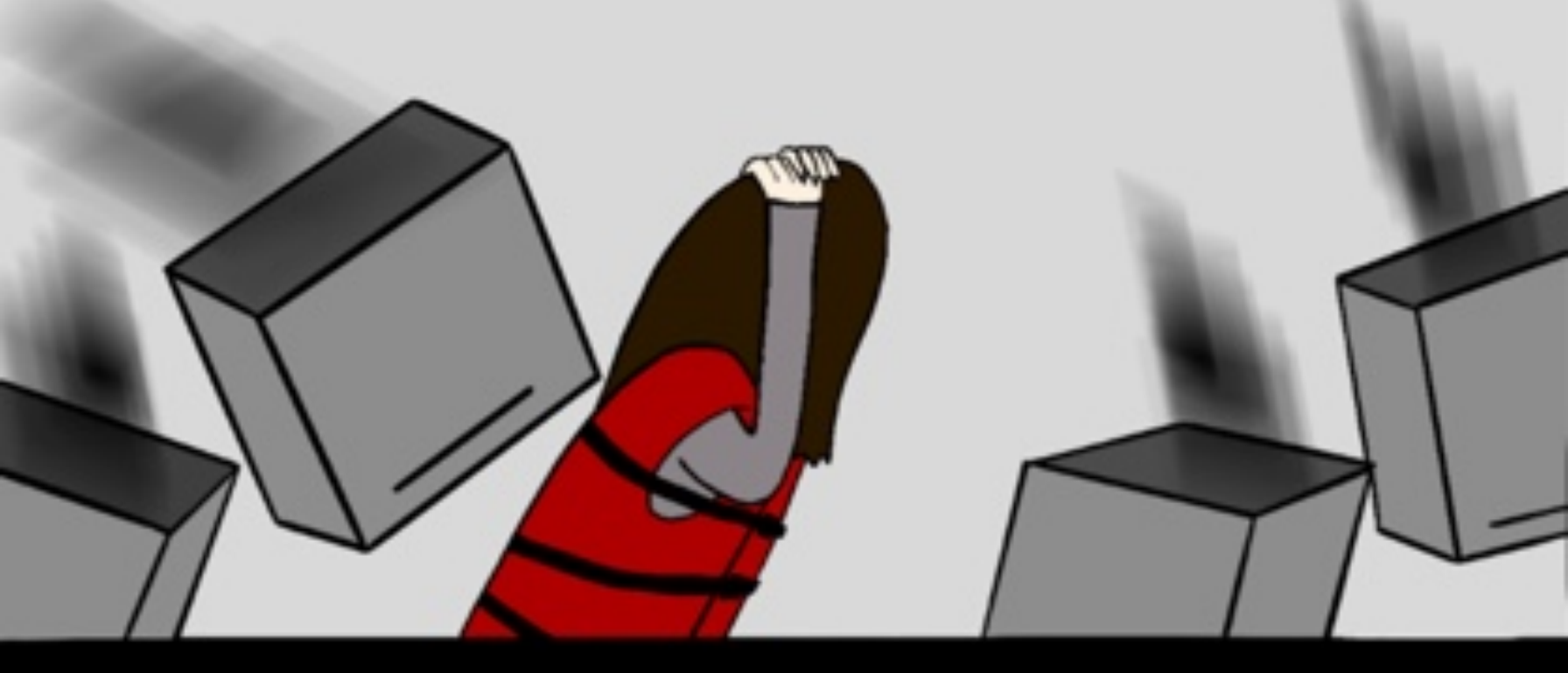
무슨
문제라도
생긴건가?

내가
왜 이렇게
안연지?



으아아악

강 미레!



으아아아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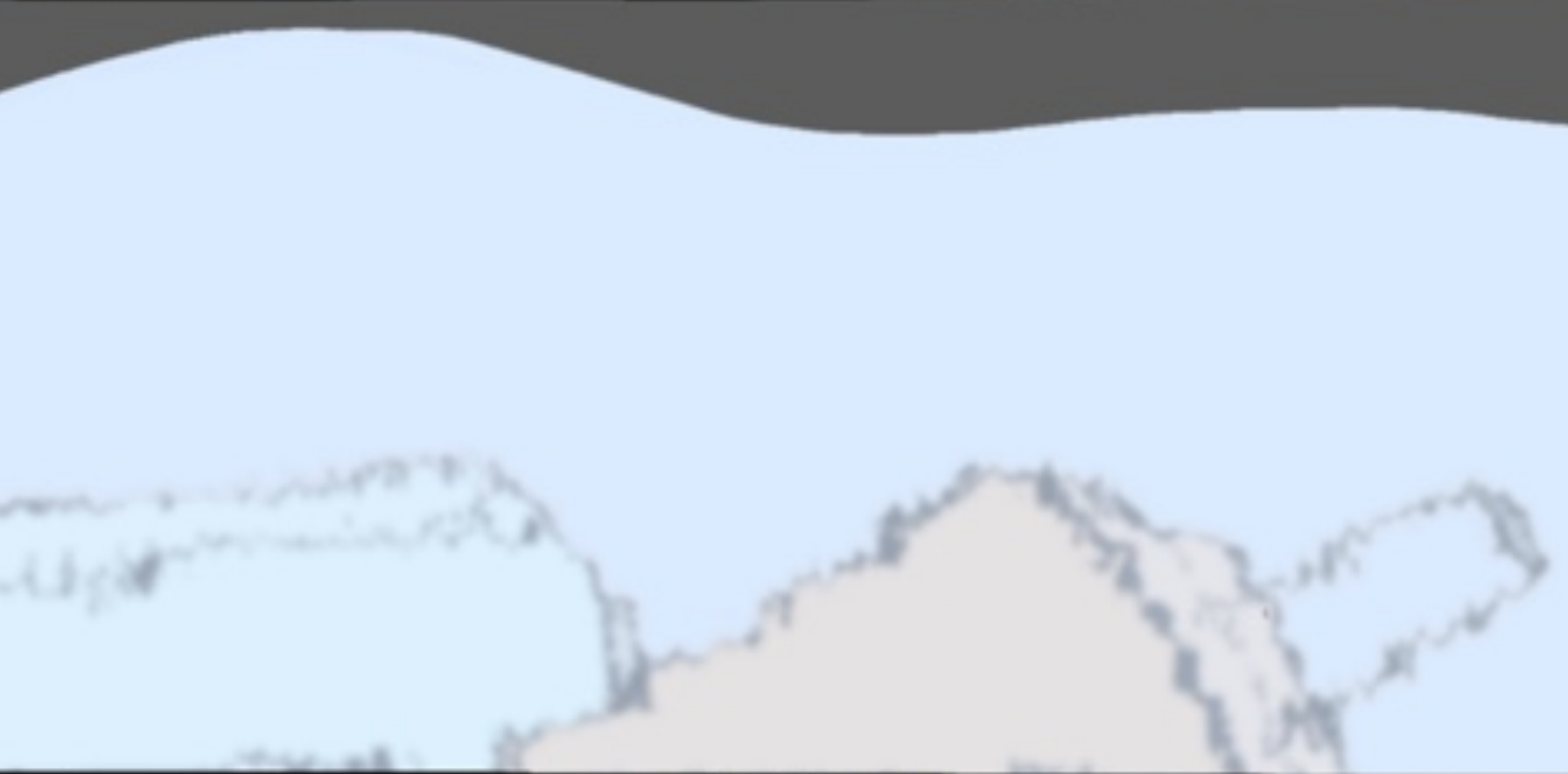
미래야 - ?



미래야.
일어나봐~~

미래는 결국
깨어나지 않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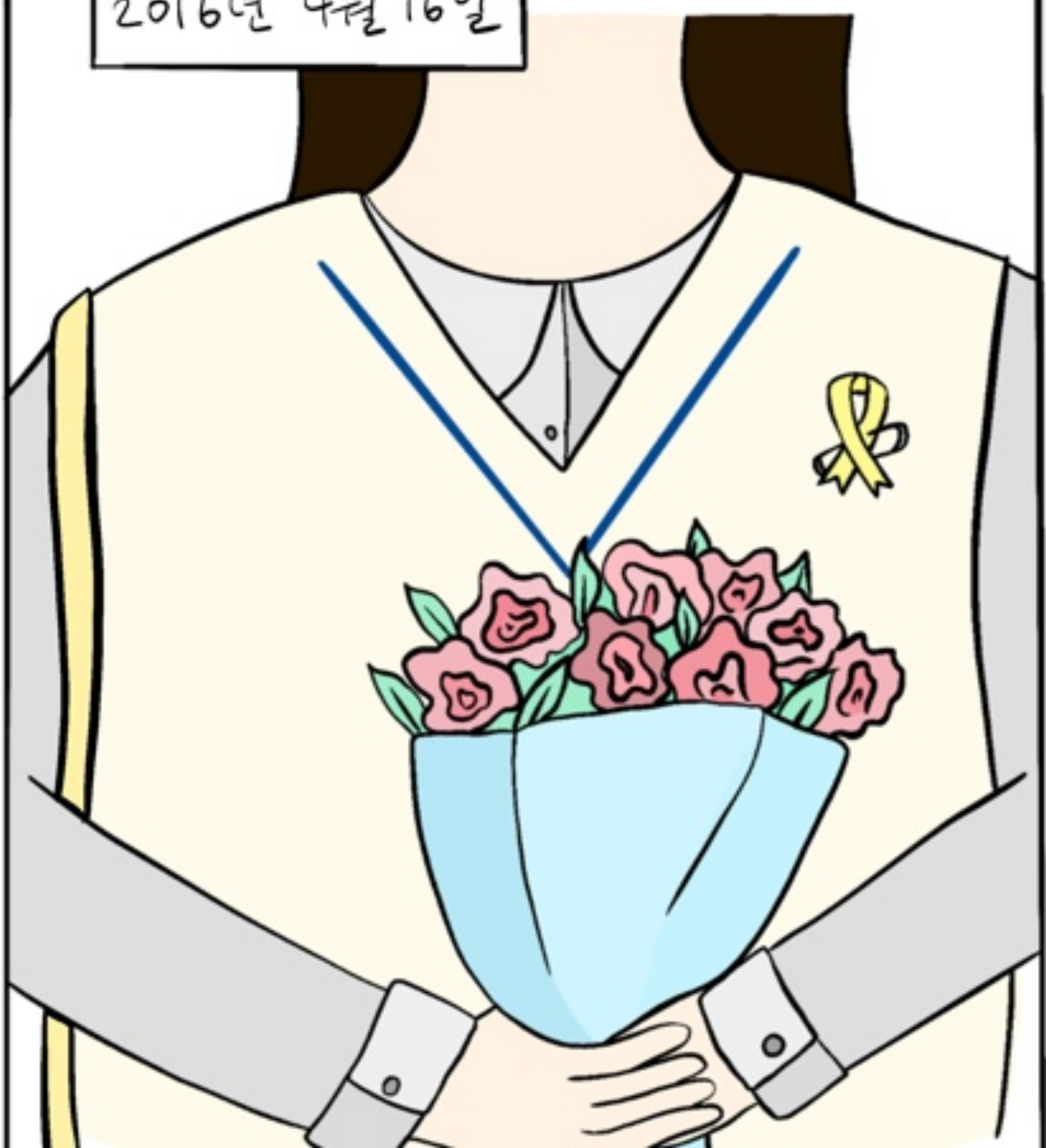


나는 그때까 마자 경선을
있었다. 그리고 기억도 있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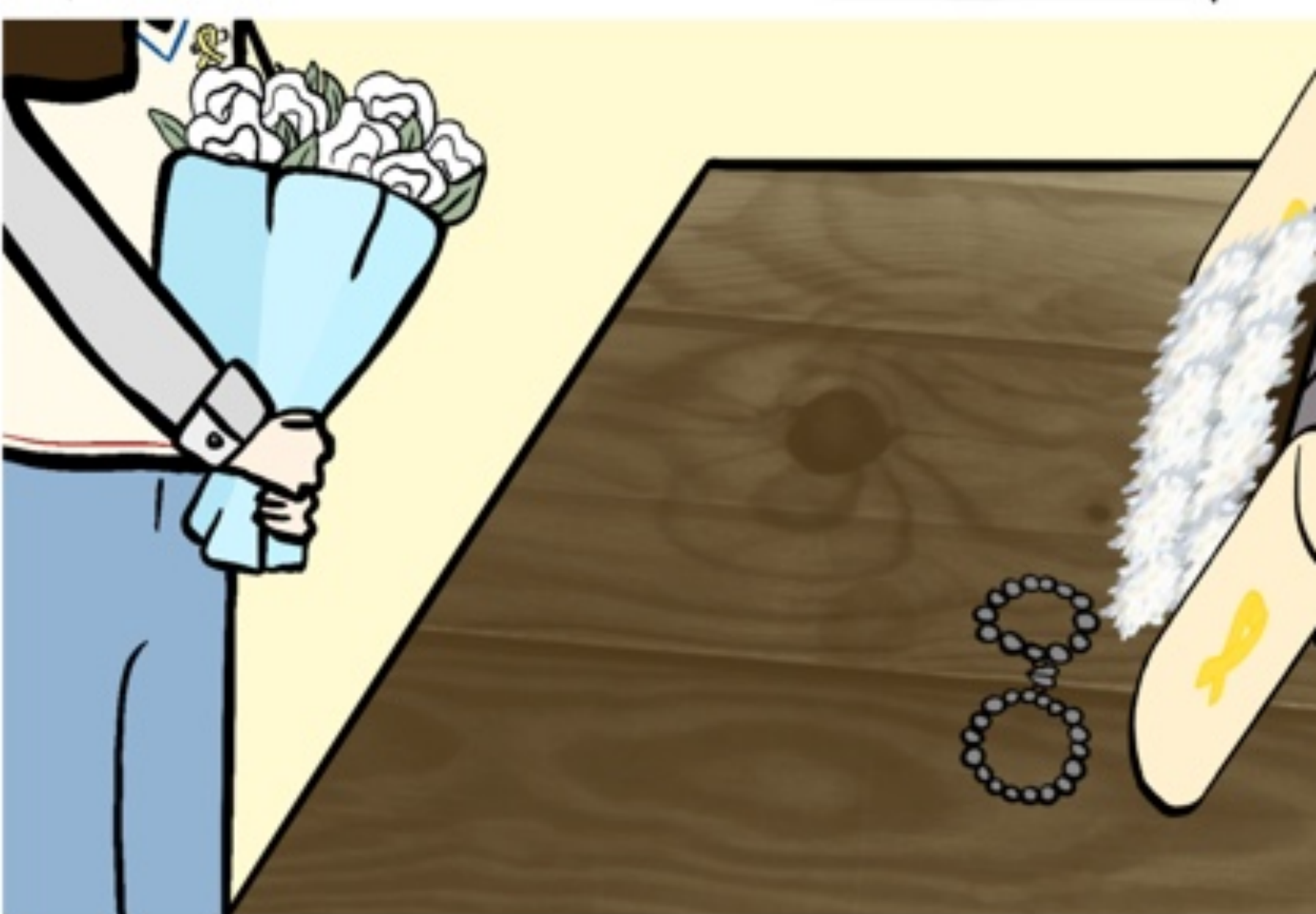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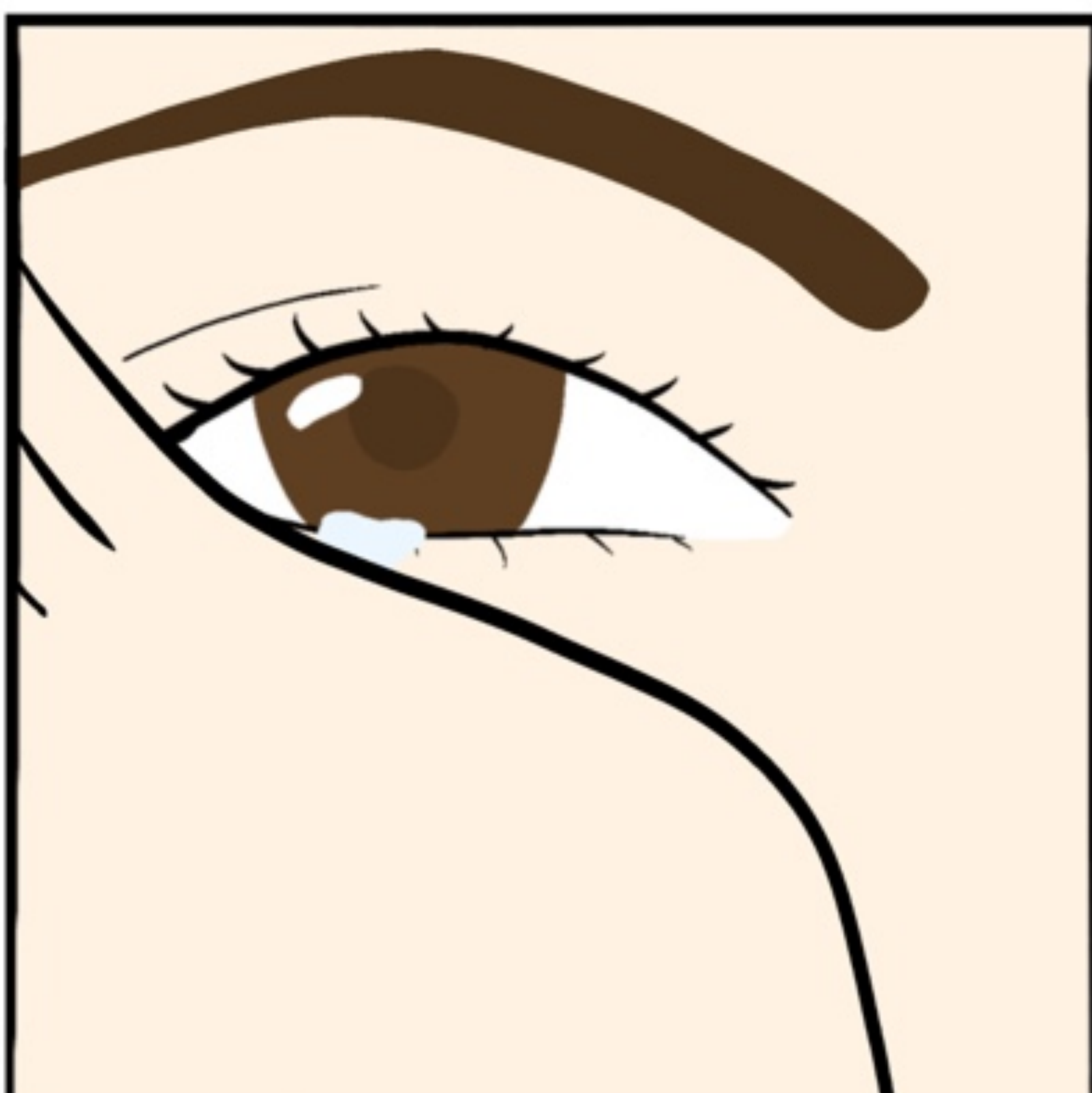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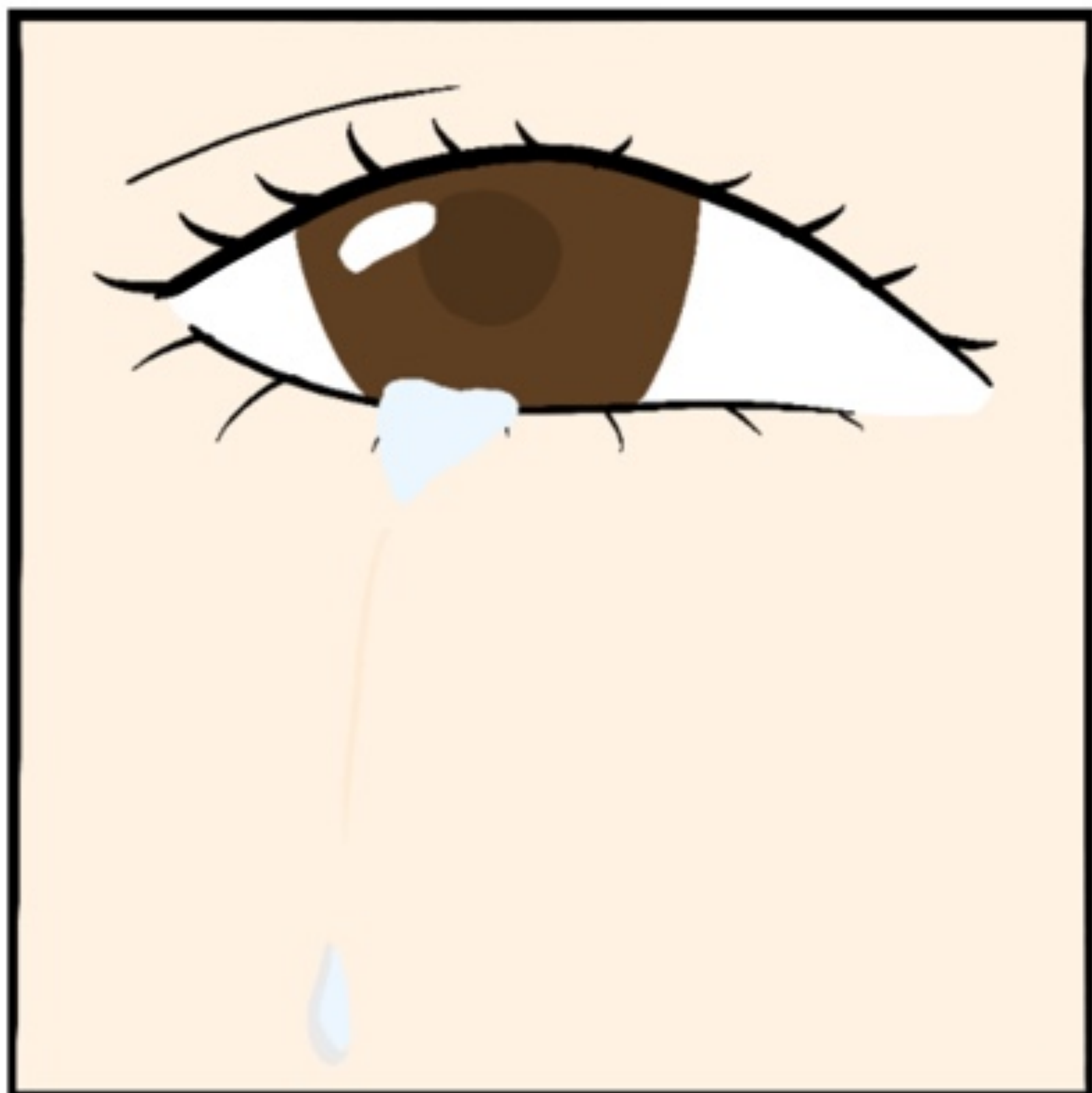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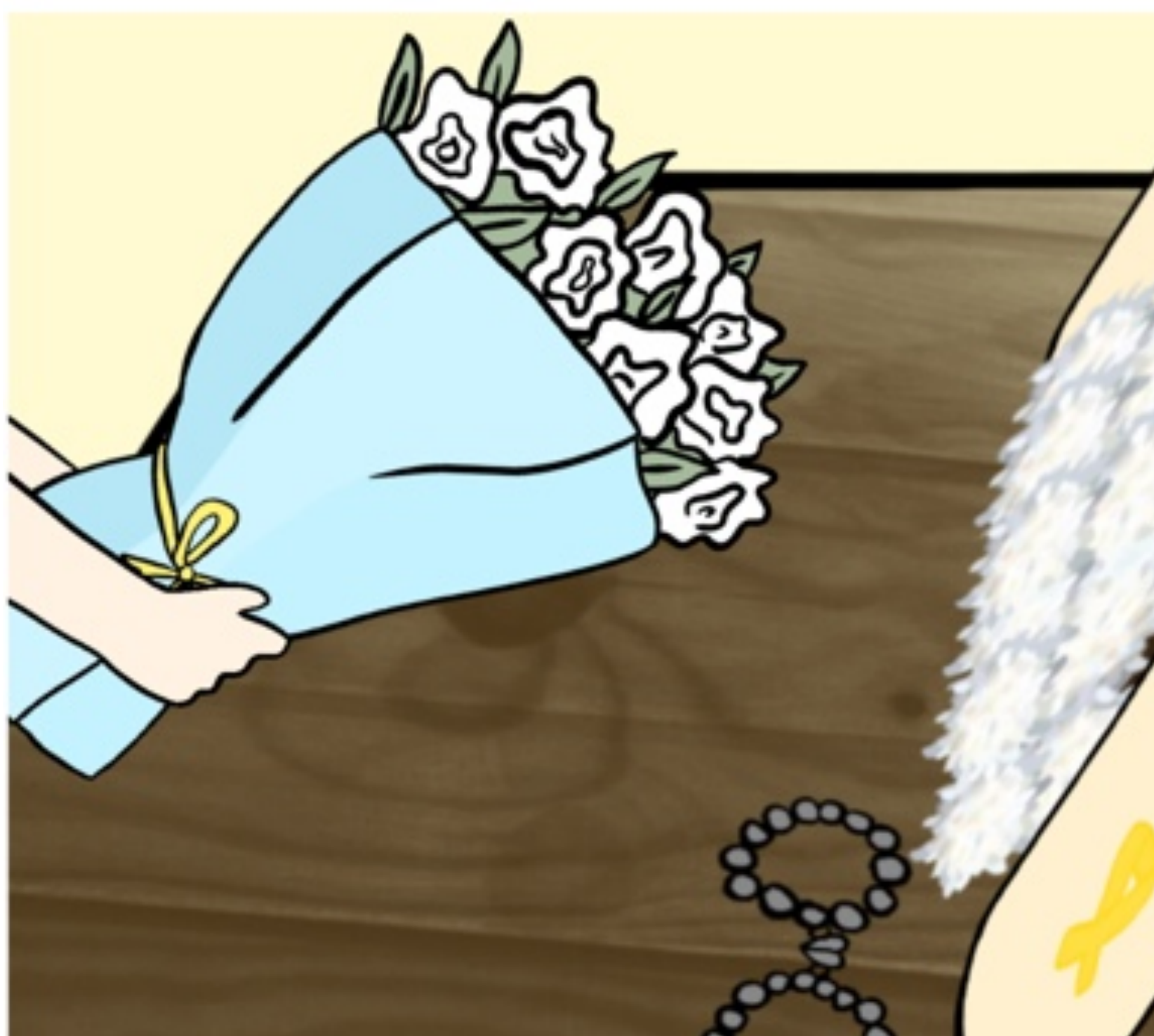
미래는 떠나지만

2016년 4월 16일



내 마음 속에 영원히
영원히 남아있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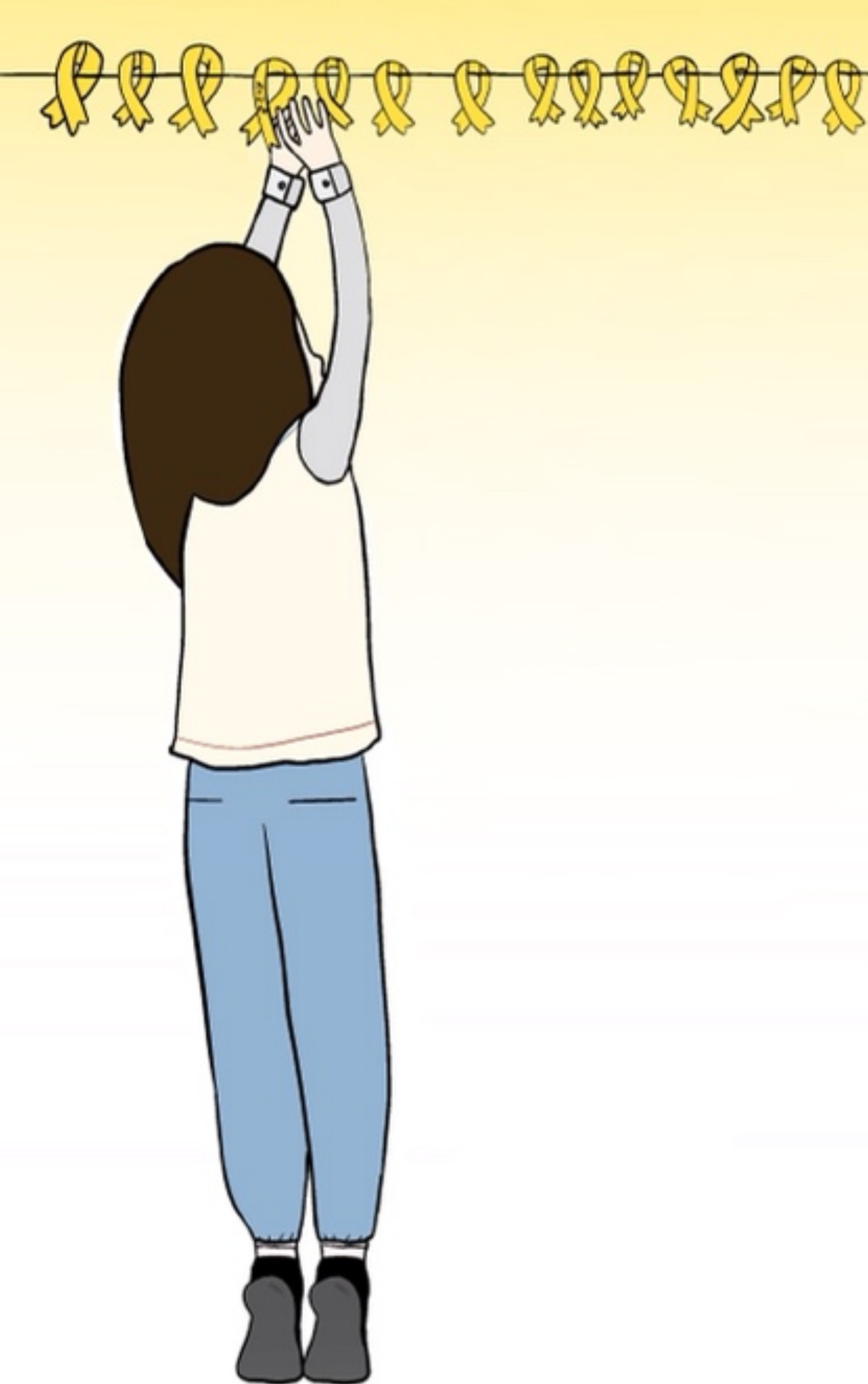
미안합니다
잊지 않겠습니다.
절대로.



너는
귀경하기 때문에
너와 살고 싶어.

너의
희생이 한때까지
영원히 살게.

대신은 미래처럼
희생당할수록 청각과 시각이
영원히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.
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.



시원호의 전상이 구명되어
억울하게 죽어간 천주들과
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
위로가 될 것 바랍니다.